

## 국내 이동인구 감소에도, 2025년 귀농 증가

- 2025년 귀농 인구 8.5% 증가, 귀촌 인구 2.2% 감소
- 귀촌 감소에도 '25.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은 평균 37.8% 증가

25일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·국가데이터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'2025년 귀농어·귀촌인 통계'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6,977가구, 가구원 413,464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.5%, 2.2%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. 하지만 귀농은 8,735가구, 가구원 11,61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.0%, 8.5% 증가했다.

국내 인구가 이동 감소 상황에서도 귀농 인구(가구원)는 11,617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며 전년보다 8.5%('24년 10,710명) 증가하였다. 특히, 70대 이상 고령층과 여성의 귀농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였다. 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('64~'74년생, '25년 기준 948만명)의 본격적인 은퇴와 농작업의 기계화·자동화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.

- \* 전년 대비 귀농인 증가율: 70대 이상 17.3%, 60대 이하 8.0% / 여성 15.4%, 남성 5.1%
- \* 70대 이상 귀농인 비중: ('15) 5.7% → ('20) 7.3 → ('24) 7.9 → ('25) 8.5
- 여성 귀농인 비중: ('15) 31.2% → ('20) 32.4 → ('24) 34.8 → ('25) 37.0

또한, 농촌 고령화에 따른 가업 승계형 귀농과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소득형 귀농이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.

- \* 혼합가구 비중: ('15) 12.9% → ('20) 12.8 → ('24) 29.9 → ('25) 33.1
- ※ 혼합가구: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구성하는 가구
- \* 귀농인 겸업 비중: ('15) 22.8% → ('20) 31.4 → ('24) 32.1 → ('25) 32.6

귀농가구의 평균 농작물 재배면적은 0.34ha(3,439㎡)로 전년 0.33ha(3,282㎡)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며, 0.5ha(5,000㎡) 미만 가구가 전체의 83.7%를 차지하였다. 귀농가구는 주로 채소, 논벼를 재배하였으며 농지를 임차하는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\* 재배작물: 채소 44.5%, 논벼 31.5, 과수 30.8, 특용 24.1, 두류 13.9 순
- \* 순수 농지임차 가구 비중: ('22) 26.9% → ('23) 27.7 → ('24) 31.1 → ('25) 33.9

귀농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전남 고흥군(153명), 전남 신안군과 경북 의성군(138명), 경북 상주시(125명), 전남 나주시(121명)이며, 귀농 전 거주지는 경기도가 21.0%로 가장 많았고 서울(14.2%), 광주(8.2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에서 이주한 귀농인이 40.5%(3,700명)를 기록하였다.

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4년 대비 2.6% 감소하면서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다. 이러한 상황에서도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촌 흐름세가 지속되었으며, 귀촌 가구주 중 30대가 23.2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.

- \* '25년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12만 명으로 '24년 628만 명 대비 2.6% 감소
- \* 30대 이하 귀촌 가구주 비중: ('21) 43.2% → ('22) 42.2 → ('23) 43.3 → ('24) 43.6 → ('25) 43.0
- \* 연령별 귀촌 가구주 비중: 20대 이하 19.8%, 30대 23.2, 40대 15.7, 50대 17.7, 60대 15.5, 70대 이상 8.0

귀촌 이유는 '일자리'가 32.1%로 가장 많았고 '주택' 26.1%, '가족' 25.4% 순이었다. 하지만 연령대별로 귀촌 이유는 달랐는데, 40대 이하는 '일자리'가, 50대 이상은 '주택'이 1순위였다. 이러한 가운데, 귀촌 이유 중 '가족'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.

- \* 귀촌 이유 중 직업 비중: 20대 이하 47.7% 30대 34.5, 40대 33.3, 50대 31.3, 60대 20.9, 70대 이상 7.9
- 주택 비중: 20대 이하 11.0% 30대 26.2, 40대 29.2, 50대 31.6, 60대 34.0, 70대 이상 29.6
- \* 귀촌 이유 중 가족 비중: ('22) 23.3 → ('23) 24.1 → ('24) 24.2 → ('25) 25.4

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(23,790명), 남양주시(14,980명), 용인시(14,623명), 충남 아산시(13,896명), 충북 청주시(13,790명) 순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작년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지역은 귀촌인이 평균 37.8% 증가했다.

최근 5년 이내 귀촌한 222만 명 중 15,631명(0.7%)이 '25년 농업을 새로 시작하였으며, 최근 5년 이내 귀농·귀촌한 사람 중 귀농인 1,969명(전체 5.9만 명의 3.4%), 귀촌인 18.4만 명(전체 222만 명의 8.3%)이 도시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.

농림축산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“국내 인구나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귀농이 증가한 것은 의미가 크다”며, “이제는 도시민의 농업·농촌 유입뿐만 아니라 귀농·귀촌인이 농촌에 계속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 이를 위하여, “농촌 지역의 일자리와 빈집, 농지 등 다양한 정보를 더욱 확대하고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‘그린대로’를 통해 이를 개인에 맞춰 제공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별첨 2025년 귀농어·귀촌인 통계

담당 부서	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	책임자	과 장	박혜민 (044-201-1531)
		담당자	서기관	홍석구 (044-201-1539)

